

“경제 불확실성 어떻게 대처할 건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민생경제안정 집중 추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급격한 위기 오지 않을 것”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 날인 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부·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했지만 본회의장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20여명에 그쳐 대선 분위기에 빠진 정치권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덕·최은열·박용진·이인주·홍익표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최원혜·송희경·정태욱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등이 나서 조기대선·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예견되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윤호덕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 6월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다. 통화당국은 당국대로, 외환시장은 외환시장이 라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 섹터에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요즘 경기가 20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보다 나쁘다고들 한다”면서 “객관적인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20년 전과 다르다. 성장세 자체가 낮지만 안정된다. 특히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재정여력이 상당하다. 그런 류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의원이 “4대강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등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은 연건”이라며 “일자리를 만들면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겨냥해서도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 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보완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 후에 1년 뒤에 전부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려 1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약속은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달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지 3년이다. 그런데 그동안 1인당 GDP가 겨우 1000달러 늘었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달러에 비해 원화가 약세인 측면이 있다. 금융 기관 개혁 효과는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475억 투입 을 수산물 가공산업 확대

산지가공시설 251억

전남도가 올해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 수산물 가공산업에 475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산지가공시설 25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76억원, 건강수산물식품복합센터 건립 60억원,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 10억원, 중형저온저장시설 19억원, 소형저온저장시설 20억원, 수산물 HACCP시설 지원 39억원 등이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뒀다. 특히 올해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은 냉동·냉장 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영세 어업인과 소규모 소매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5개년(2017~2021) 계획’을 수립, 수산물가공산업을 어촌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분야 9개 과제 3376억원을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6178개의 일자리와 1조 40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에서 생산된 명품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현대화된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9일 오후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순현 경남행정부지사·김관용 경북지사·송하진 전북지사·이낙연 전남지사·서병수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윤장현 광주시장·허언욱 울산행정부지사. <광주시 제공>

영·호남 8개 시·도지사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9일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 조직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수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 철도망과 광역 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2건을 논의했다. 또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영호남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23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품 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비용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이 구축되도록 관련 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 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시민주도 개헌 필요”

광주·전남기자협회 대토론회

올해 정치변화와 새로운 체제를 위해선 대통령을 국민 직선에 의해 별도로 선출하고 일정하게 권한을 주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9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새로운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7 정치변화와 새로운 체제를 위한 비전 1차 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번 국정농단의 원인은 견제 받지 않는 제약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배경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 개혁은 물론 국회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도 대통령에 중추된 새누리당과 대통령 권력 견제에 무기력한 우리의 의회정치가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우선적인 개혁과제는 현행 대통령제다. 견제할 수 없는 대

통령 권력, 무책임한 대의제 권력을 개혁하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광주도 전략적 선택으로 치장되는 정치가 아니라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정치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현행법의 제약적 대통령제 문제는 87년 체제가 6월 혁명의 에너지를 밀실의 타협 정치로 소진시킨 가운데 성립했다”면서 “현행제도를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문제보다 개헌과정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원칙에

민주당 광주시당, 지역 대선공약 발굴 나선다

전문가회의·토론회 통해 여론 수렴 후 중앙당 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문가 회의와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 정책공약 발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017 대선 정책공약단’(단장 이병훈)은 8일 그동안 발굴한 대선 정책공약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지난 7일 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에는 김영주 광주전남 ICT융합협회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고재상 ETRI수석연구원, 김동근 광주산업평가단장, 노경수 광주대 교수, “시민과 당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실 효성 있는 공약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다론 결과 이번 대선의 지역 정책공약은 ▲광주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광주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광주의 혼을 지키겠습니다 ▲시민 및 당원제안 공약 등 4개 대주제로 분류해 개발하기로 했다. 광주시당은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이날 제6차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발굴 공약에 대해 앞으로 시민 대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중앙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형서 시당위원장은 “대선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진정한 광주발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시민과 당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실 효성 있는 공약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